



▲ 한양 도성의 북쪽 대문입니다.



◀ 조선 시대에 태종이 지은 궁궐로,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.



▲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.



▲ 한양 도성의 동쪽 대문입니다.



▲ 조선 시대에 물의 양을 재는 수표를 세웠던 다리로, 지금의 청계천 위치에 있다가 장충단公園으로 옮겨졌습니다.



◀ 조선 시대에 도성 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려거나,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누각입니다.

완성

3
단원

18회
학습

조선

